PVC천정재, 국산이 수입품 압도

시장규모 월 7만여평 … 상명 · 한국 · 서경 3사가 시장주도

국내 PVC천정재 수요가 꾸준히 신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종을 이루던 수입품이 점차 국산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 Grosfillex로 부터 PVC 천정재를 수입, 국내시장을 선도했던 구정통상이 마감자재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바닥재용 목재 수입에 치중, 국내 생산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PVC천정재 수요 증가추세는 향후 2~3년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인은 강남 등 부유층을 중심으로 아파트 화장실 개조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루미늄, 타일, 저가 목재가 주로 사용되던 사우나, 목욕탕, 수영장, 샤워실, 체육시설 등 습기에 노출된 공간이 고급목재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의 아파트 욕실의 천정 보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PVC천정재 수요가 급증, 2000년까지 매년 20%이상의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 PVC천정재 생산기업 현황

(평/월)

구 분	생산량	상품명	시장 점유현황
상명플래스틱	25 000	허니컴	건설 50% 일반합판용 30%
한국산업	15 000	-	건설 20% 일반합판용 30%
서경크리스판	15 000	크리스판	건설 20% 일반합판용 40%
기타	-	액사판	건설 10% 일반합판용 1%

국내 PVC천정재 생산은 상명플래스틱, 한국산업, 서경크리스판 등 생산능력이 비교적 큰 3대기업을 비롯 군소기업 20여개가 난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생산제품은 m2당 가격이 수입품의 3만원대에 턱없이 못미친 1만원대로 낮은 것은 물론 군소기업들이 빌라 및 소규모 건설기업에 무분별하게 납품하는 등 유통질서가 흐트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제품이 칼라 및 코팅 기술력에서 수입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지만, 지나친 과당경쟁에서 파생되는 자가당착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생산현황을 보면, 상명플래스틱은「허니컴」상품명으로 월 2만5000평을 생산, 국내 건설용의 50%, 건자재상을 통해 판매되는 일반 합판용 30%를 각각 점유하는 등 국내 시장을 사실상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 월 1만5000평을 생산, 건설시장 20%, 일반 합판용시장 30%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크리스판도「크리스판」을 상품명으로 월 1만5000평을 생산, 건설용은 20%내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으나 일반 합판용은 40% 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구정통상을 비롯 군소기업이 건설용 10%, 일반 합판용 1%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구정통상이 PVC천정재 시장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적기공급, 한정물량 판매 등의 문제를 비롯 제품의 특성상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길이 제한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6/10/14>